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먹처럼 생겼다.’, ‘흘러가는 길이가 2~3척이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말일까요? 바로 하늘을 관찰하여 표현한 말로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승정원일기』에는 날씨 기록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날씨로 본 『승정원일기』의 활용 가치에 대해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시대에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으면서 비서실의 기능을 했던 승정원에서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 별로 기록한 책입니다. 원래 조선 건국 초부터 작성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상당 부분이 불타 버리고 인조 이후의 기록만 전하는데요,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 쓰인 것으로 총 3,243책에 이릅니다. 『승정원일기』는 288년 동안의 날씨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매우 상세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승정원일기』 중 일기의 앞부분 사진들입니다. ‘청(晴)’은 맑은 날, ‘음(陰)’은 흐린 날을 의미하며, 눈과 비, 안개 등도 따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맑았다가 흐려졌다 등 날씨의 변화까지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영조가 세종 대의 측우기를 복원한 이후, 170여 년간의 강우량을 측정한 기록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강우 기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비가 가장 적게 오는 ‘미우(微雨)’부터 가장 많이 오는 ‘폭우(暴雨)’에 이르기까지 강우량에 따라 여덟 등급으로 나누고, 시간대별로 강우량을 세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현대의 기상 자료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선 시간대별 강우량을 보면, 하루 중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은 새벽 5시경, 가장 적게 오는 시간은 저녁 9시경으로 일치했습니다. 또한 월별 강우량을 비교했을 때,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 주기는 거의 일치하며, 연간 강수량도 평균치는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1880년부터 1900년까지 유독 비가 적게 온 기간이 20년 가까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기상 자료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비교한 자료를 분석하면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2~3년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적게 오는 경우는 10~20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상 변화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주기로 일어나는데, 『승정원일기』의 정밀하게 측정된 날씨 기록은 앞으로의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 유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도 연관 있는 사료인 『승정원일기』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청중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중심 화제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2. 위 강연에서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승정원일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에 일기의 앞부분 사진들을 제시하였다.
- ② 『승정원일기』의 날씨 기록이 상세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에 날씨가 기록된 부분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③ 『승정원일기』의 강우 기록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에 현대의 강우 기록 자료를 제시하였다.
- ④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강우량과 현재의 강우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에 강우량의 등급표를 제시하였다.
- ⑤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기상 기록이 현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에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현대 기상 자료를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3. <보기>는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승정원일기』는 방대한 양인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강연자에게 질문을 해야겠어. 그리고 얼마 전에 『승정원일기』 번역 작업에 AI가 투입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료를 좀 더 검색해 봐야겠어.

학생 2: 조선 시대의 기록은 과거의 기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의 이상 기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조선 시대의 기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승정원일기』뿐일까?

학생 3: 『승정원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 이것은 『승정원일기』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해. 기후뿐만 아니라 왕명 출납과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다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아.

- ① ‘학생 1’은 강연을 들으며 생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군.
- ② ‘학생 2’는 강연을 통해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군.
- ③ ‘학생 3’은 강연을 들으며 강연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강연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4~7] (가)는 마을 축제 부스 운영을 위한 토의이고, (나)는 학교 신문 기사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우리 ○○동아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됐어.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이번 마을 축제의 주제가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니까 이와 관련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학생 3: 캠페인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활동은 작년 축제 때 해 봤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때?

학생 4: 그거 좋은 생각이야. 마을 축제의 주제를 고려해 봤을 때,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좋겠는데.....

학생 3: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과학 시간에 했던 공기 정화 비교 실험 기억나? 이끼 필터가 화학적 필터보다 미세 먼지 감소율이 더 높았잖아. 이 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A]

학생 2: 좋은 의견이야. 요즘 대기 오염과 미세 먼지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실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학생 1: 그래.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마을 주민들과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지식 나눔'이라는 우리 동아리의 활동 취지와도 잘 맞는 것 같아.

학생 4: 좋아. 그러면 이번 마을 축제에는 '미세 먼지로부터 호흡기 건강 지키기'를 주제로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를 운영해 보자.

학생 1: 그러면, 부스 홍보는 어떻게 할까?

학생 2: 현수막이 홍보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이번에는 현수막을 제작해 보자.

학생 4: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문구를 잘 만들면 홍보 효과를 거야.

학생 3: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학생 4: 이끼에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

학생 2: 그런데 현수막은 포스터와 달라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학생 1: 그럼, 현수막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지 말고 몇 가지 정보만 넣어서 만들어 보자. 지식 나눔이라는 우리 동아리 활동 취지를 넣고, 부스에서 하는 체험 내용도 포함 하자. 그리고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구의 방법도 사용하면 좋겠어. [B]

학생 3: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학생 2: 그래. 네가 저번에 만든 우리 동아리 홍보 포스터 문구도 신입생들에게 인기가 좋았잖아.

학생 3: 이런 문구 어때?

학생 1: 좋아. 그럼 홍보 문구는 이렇게 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자.

(나)

[표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 우리 마을과 함께 나뉘요.

[부제] ○○동아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 운영해

[전문] 지난 9월 1일 우리 학교 ○○동아리는 마을 축제에서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지식 나눔을 실천했다.

[본문] 지난 9월 1일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마을 축제가 열렸다. 우리 학교 ○○동아리는 과학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화학적 필터 대신 이끼를 필터로 활용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날 부스에는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많은 마을 주민들이 방문하여 이끼 필터를 넣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공기청정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체험 부스를 준비한 ○○동아리 회장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 김△△ 씨는 "○○동아리의 현수막 홍보 문구가 눈길을 끌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학생들 덕분에 이끼에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고, 공기청정기도 생겨 좋았어요."라고 체험 소감을 말했다.

○○동아리는 이번 체험 부스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이웃 마을 축제에도 초청되어, 지식 나눔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4. [A]의 답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1'은 토의의 전체 순서를 제시한 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② '학생 3'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학생 3'이 제시한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④ '학생 4'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⑤ '학생 4'는 예상되는 결과를 언급하며 '학생 3'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5. 다음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올해 ○○동아리가 참여하는 마을 축제의 주제
- ② 수업 시간에 했던 공기 정화 비교 실험의 결과
- ③ 체험 부스에서 만들 이끼 공기청정기의 제작 과정
- ④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활동을 계획하게 된 배경
- ⑤ 올해 ○○동아리가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6. [B]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마을에서 마음을 나눕니다. ○○동아리 체험 부스로 오세요.
 - ② 건강한 우리 마을 만들기, 이끼 공기청정기 제작 체험 부스로 오면 깨끗한 공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 ③ ○○동아리 체험 부스에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건강을 나누어드립니다. 이끼를 필터로 활용한 공기청정기를 함께 만들어 봐요.
 - ④ 지식은 나누면 기쁨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지식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마을 축제에 오면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⑤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 지식을 나눌수록 마을은 건강해집니다. ○○동아리 지식 나눔 체험 부스에서 이끼 공기청정기 만들고 건강도 챙겨 가세요.

7. 다음은 (나)에 대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표제	○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겠군. ①
부제	○ 표제를 구체화하여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겠군. ②
전문	○ 본문에서 다룰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해야겠군. ③
본문	○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동아리 회장과 마을 주민의 인터뷰를 제시해야겠군. ④ ○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이끼 공기청정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야겠군. 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학생회 프로젝트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학생회 임원들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을 건의하게 된 상황을 밝혀야겠군. ㉠
-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설명해야겠군. ㉡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제시해야겠군. ㉢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의 어려움을 언급해야겠군. ㉣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때의 장점을 설명해야겠군. ㉤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임원 1학년 이△△입니다. 지난달 학생회에서 ㉠소방서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최근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회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다면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성격, 펀딩의 목표 금액, 펀딩 자금으로 완성될 결과물을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 모금을 한 후,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그 결과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학교 일과 이외의 시간에도 후원이 가능하며 크라우드 펀딩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온전히 학생들의 힘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이번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학생회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학생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중단된 학생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8.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신문 기사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는 매년 2~3배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의 진행 프로젝트 수가 2015년 501건에서 2018년 3,266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2019년 10월에는 ‘독도 후드티’ 프로젝트가 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의 1,000%를 달성하기도 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곳에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 설문 자료

클라우드 펀딩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1. 클라우드 펀딩 참여에 만족한 이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65%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어서	23%
참여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볼 수 있어서	10%
기타	2%

2. 클라우드 펀딩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52%
프로젝트 종류의 다양화	36%
개인 정보 보안 강화	7%
기타	5%

(다) 전문가 인터뷰
 클라우드 펀딩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 없이 소액이라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어 클라우드 펀딩의 방식을 이용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알리고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프로젝트 의무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최근에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② (나)-1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다면 지역 사회에 기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근거로 삼는다.
- ④ (가)와 (나)-1을 활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나)-2와 (다)를 활용하여,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인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소방서에’로 고친다.
 - ② ㉡: 잘못된 피동 표현이므로 ‘사용할’로 고친다.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참여하기를’을 추가한다.
 - ④ ㉣: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 ⑤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등학교 국어 자료실 게시판

문고 답하기

질문 ‘국’은 [국]으로 발음하는데, 왜 ‘국물’은 [궁물]로 발음하나요?

답변 ‘국물’은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국물’의 받침 ‘ㄱ’이 비음 ‘ㄹ’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됩니다.

(나) 우리말에는 (가)의 사례처럼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하며 비음화, 거센소리되기, 모음 탈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각각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원리로, ‘밤만’, ‘닫는’도 각각 [밤만], [닫는]으로 발음된다. 또한 ‘담력[담녁]’, ‘종로[종노]’처럼 ‘ㄱ’이 비음 ‘ㄹ, ㅇ’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도 비음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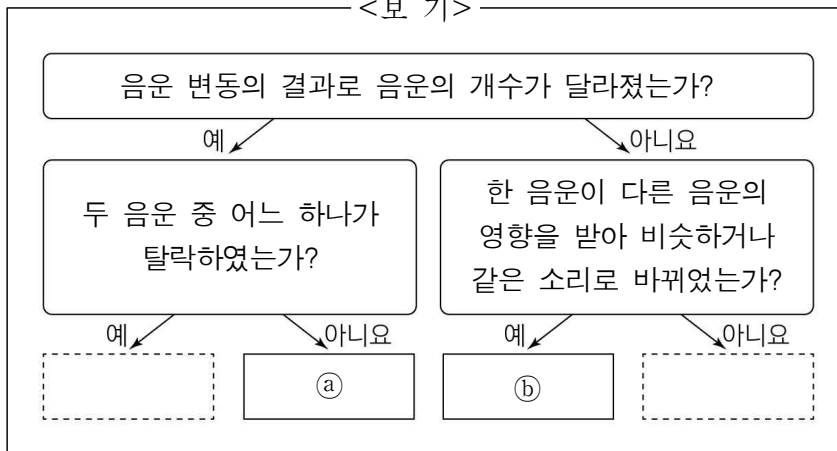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로 ‘축하’는 ‘ㄱ’과 ‘ㅎ’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인 ‘ㅋ’이 되어 [추카]로 발음되며, 음운의 개수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모음 탈락은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가-+-아서’가 ‘가서[가서]’가 되거나 ‘담그-+-아’가 ‘담가[담가]’가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므로 그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앞에 제시된 자음 중 하나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것도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한다. ‘부엌[부억]’, ‘옷[읏]’이 그 예이다.

한편 음운 변동은 한 단어 안에서 한 번만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앞마당’은 먼저 음절 끝의 자음 ‘ㄷ’이 ‘ㅂ’으로 바뀐 후 비음화가 일어나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11.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탐구한 자료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 | |
|-----------------|--------|
| ㉠ | ㉡ |
| ① 창밖[창박] | 능력[능녁] |
| ② 농다[노타] | 다섯[다싯] |
| ③ 만형[마형] | 식물[싱물] |
| ④ 쓰-+-어→써[씨] | 법학[버팍] |
| ⑤ 타-+-아라→타라[타라] | 집념[짐념] |

12. 밑줄 친 단어 중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구피지] 않았다.
- ② 올 가을에는 작년[장년]보다 단풍이 일찍 물들었다.
- ③ 미리 준비하지 않고[안코] 이제야 허둥지둥하는구나.
- ④ 우리 집 정원에는 개나리, 장미꽃[장미꼴] 등이 있다.
- ⑤ 물감을 섞는[성는] 방법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

13. <보기>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ㄱ, ㆁ’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 ㉠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1.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 ㉡
- 2.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 ㉢

- ① ‘시계를 보다.’에서 ‘보다’는 ㉠에 따라 어간 ‘보-’에 어미 ‘-아’가 결합해 ‘보아’로 적겠군.
- ② ‘간식을 먹다.’에서 ‘먹다’는 ㉠에 따라 어간 ‘먹-’에 어미 ‘-어’가 결합해 ‘먹어’로 적겠군.
- ③ ‘마당의 눈이 희다.’에서 ‘희다’의 어간 ‘희-’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에 따라 ‘희여’로 적겠군.
- ④ ‘민수가 공부를 하다.’에서 ‘하다’의 어간 ‘하-’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에 따라 ‘하여’로 적겠군.
- ⑤ ‘약속 장소에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어간 ‘이르-’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에 따라 ‘이르러’로 적겠군.

14.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보기>의 ㄱ~ㅍ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그는 어제 고향을 떠났다.
- ㄴ. 지난겨울에는 정말 춥더라.
- ㄷ. 친구와 함께 본 영화는 재미있었다.
- ㄹ. 작년만 해도 이곳에는 나무가 적었었다.
- ㅁ. 축제 준비를 하려면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 ① ㄱ을 보니,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고 있군.
- ② ㄴ을 보니,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군.
- ③ ㄷ을 보니,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군.
- ④ ㄹ을 보니,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군.
- ⑤ ㅁ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는군.

15.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재다¹ 「동사」
 【…을】 【-ㄴ지를】
 ① 자, 저울 따위의 계기를 이용하여 길이, 너비, 높이, 깊이, 무게, 온도, 속도 따위의 정도를 알아보다.
 ¶ 온도계로 기온을 재다.
 ② 여러모로 따져 보고 헤아리다.
 ¶ 일을 너무 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재다² 「형용사」
 ① 동작이 재빠르다.
 ¶ _____
 ② 참을성이 모자라 입놀림이 가볍다.
 ¶ 입이 재다.

- ① 재다¹과 재다²는 모두 다의어이다.
- ② 재다¹과 재다²는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③ 재다¹은 재다²와 달리 문장 구조상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④ 재다¹-②의 용례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어 보아라.’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재다²-①의 용례로 ‘발걸음이 재다.’를 들 수 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다.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관증을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써 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 주며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은 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를 했다.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다. 첫째,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금융중개 기능이다. 은행은 금융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조성된 자금이 한층 더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둘째, 화폐를 창출하는 예금창조 기능으로, 예금창조는 신용창조라고도 한다. 다시 금세공업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일 금세공업자가 맡아 놓은 금 전체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그 경제의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금세공업자가 써 준 모든 보관증에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 놓은 금의 양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맡아 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용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금세공업자들이 맡아 놓은 금의 30%만 남겨 놓기로 결정했다면, 70%만큼의 금을 다른 사람이 빌려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이는 유통되는 금의 양, 즉 통화량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을 뜻한다. 만약 금을 대출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금세공업자에게 맡기고 보관증을 받는다면 통화량은 한층 더 늘어난다. 그 금세공업자가 다시 30%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의 몇 배 크기로 늘어나게 되고, 금세공업자들이 맡아 두었다고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으로 예금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빛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의 예금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 경제의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일정 시점의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해 놓은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면 은행의 예금창조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의 내역은 대차대조표의 오른쪽에 기록되며,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의 내역은 왼쪽에 기록된다. 이때 대차대조표의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한다.

자산		자본 및 부채	
지급준비금	300	예금	1,500
대출	1,200	기타 부채	300
유가증권	300	자본금	200
기타 자산	200	-	-
총계	2,000	총계	2,000

<표> 가상 은행의 대차대조표(단위: 십억 원)

<표>는 가상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예금이기 때문에 은행은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 오른쪽을 보면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언제나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은행이 다른 금융 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온 내역은 기타 부채로 나타나 있고, 마지막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왼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운영된다. 이 은행은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떼어 놓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을 해주거나 유가증권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은행의 지급준비제도와 대출을 통해 예금통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대차대조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는데, 통상 예금 이자에 비해 대출 이자가 높으므로 양 이자의 차이로 발생한 예대 금리 차가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된다.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까닭은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차입자의 신용도에 맞춰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A]이다. 은행의 영업 이익은 예대 금리 차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력과 지점 조직, IT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 손실을 영업 이익보다 적게 유지해야만 안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대출 손실이 영업 이익을 넘어선다면 은행은 자본금까지 잠식당하게 된다. 따라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되 신용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은행업의 본질이다.

16. 밑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행은 자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융통해 주며 금융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춘다.
- ②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기타 부채로 기재된다.
- ③ 은행의 예금창조는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 ④ 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내역과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내역이 기록된다.
- ⑤ 은행은 조성된 자금이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곳에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17.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일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주는 것	고객의 돈을 보관해 주는 것 ... ㉠
맡아 둔 금의 일정 부분을 남겨 두는 것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 ㉡
맡아 둔 금의 일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것	예금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것 ... ㉢
금을 많이 맡아 두려고 하는 것	예금을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것 ... ㉣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하는 것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것 ... ㉤

18.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폐라는 자산이 생기지만 그 경제의 통화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② 은행에 서류상으로 맡겨 놓은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창출되는 예금통화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③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도 통화량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은행이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 내는 만큼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19.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2019년 ○○은행의 자산은 1,000억 원인데, 이 자산은 모두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900억 원은 예금으로, 100억 원은 자본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이 은행의 예금 금리는 평균 2%이고, 대출 금리는 평균 4%이다. ○○은행은 예대금리 차에 의해 (1,000억 원×4%)-(900억 원×2%)에 해당하는 2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12억 원은 경상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단,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은행의 영업 이익은 예대 금리 차에 의한 수익에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 10억 원이겠군.
- ② ○○은행의 수익은 22억 원으로,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것이겠군.
- ③ ○○은행의 대출 금리가 평균 4%로 평균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은 대출 손실에 대한 위험 할증금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만약 ○○은행의 대출 손실이 12억 원 발생했다면, ○○은행의 자본금은 잠식되었겠군.
- ⑤ 만약 ○○은행이 평균 2%인 예금 금리를 올린다면,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서 수익이 늘어나겠군.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
- ② ㉡: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끔.
- ③ ㉢: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음.
- ④ ㉣: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어 줌.
- ⑤ ㉤: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우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고만 발자욱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얗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 윤동주, 「눈 오는 지도」 -

(나)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언제 오나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A] 다음 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인가요?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 더 자야 한단다

(다)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의 이마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애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 걸요
 [B]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베갯모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일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지내야 해요

(라)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C]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종철, 「만나는 법」 -

(다)

나산 처사는 나이가 거의 팔십인데도 눈동자는 새까맣고 얼굴은 빨그레하며 여유로운 모습이 마치 신선과 같다. 어느 날, 다산에 있는 암자로 나를 찾아와 말하였다.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화초와 약초를 보기 좋게 심었고, 샘 가에는 바위를 둘렀으니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사는 곳 이로다. 그러나 그대는 귀양 온 사람이라, 임금께서 그대를 사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만약 오늘이라도 사면장이 도착하면 내일 이미 그대는 여기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을 뿌리며 샘을 파고 못과 도랑을 만들고 바위를 세우는 등, 마치 오래오래 여기 살 것처럼 일을 벌이는가?

나는 30여 년 전 나산의 남쪽에 암자를 세우고, 거기에 사당을 모시고 거기서 자손들을 길렀다네. 그러나 대충 깎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낡은 밧줄로 엮어 놓았으며, 뜰과 채마밭은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네. 겨우 그때그때 수리만 할 뿐이라네. 왜 이와 같이 하겠는가? 내 삶이란 떠 있는 것이기 때문이네. 혹은 떠서 동쪽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쪽으로 가며,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머무네.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그 떠 있음은 그치질 않지.

그래서 내 호(號)를 ‘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부부자(浮浮子)’라 하고, 내 사는 집을 ‘떠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부암(浮菴)’이라 하였네. 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네야 어떠하겠나? 자네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네.”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아아, 통달하신 말씀이십니다. 선생께서는 삶이 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호수 물이 넘치면 거기 있던 부평초가 도랑에 가 있고, 큰비가 내리면 나무로 깎은 인형이 물에 떠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선생께서도 스스로의 삶을 이에 비유하셨습니다.

떠 있는 것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고기는 부레로 떠 있고, 새는 날개로 떠 있고, 물방울은 공기로 떠 있고, 구름과 안개는 수증기로 떠 있고, 해와 달은 운행하면서 떠 있고, 별 자리는 연결되어서 떠 있고, 하늘은 태허(太虛)로 말미암아 떠 있고, 지구는 작은 구멍들로 말미암아 떠 있으면서 만물과 만민을 그 위에 살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배 위에 한 잔의 물을 쏟아 놓고 거기에 작은 풀잎을 배처럼 띄운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떠 있는 걸 비웃으면서 정작 자기가 바다에 떠 있는 사실은 잊어버린다면 그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을 사람이 드물 테지요. 지금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없거늘 선생께서는 떠 있음을 홀로 상심하시어 자신의 이름과 집에 그런 뜻을 드러내셨는데요, 떠 있음을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여기 있는 화초와 약초, 물과 바위는 모두 나와 함께 떠 있는 것들입니다. 떠 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 있다가 서로 헤어지면 훌훌 잊을 따름입니다. 안 될 게 무엇 있겠습니까?

그리고 떠 있는 것이 슬픈 건 아닙니다. 어부는 떠다니며 고기를 잡고, 장사꾼은 떠다니며 이익을 얻습니다. 범려는 장

호를 떠다니며 화를 면했고, 서불은 바다를 떠다니다 나라를 세웠고, 장지화는 강물을 떠다니며 삶을 즐겼고, 예원진은 호수를 떠다니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일찍이 바다를 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떠다니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에 떠다니는 사람도 그럴진대 땅에 떠 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상심하겠습니까? 청컨대, 오늘 함께 나는 말씀으로 ‘떠 있는 집’에 대한 글을 써서 선생의 장수를 축원하고자 합니다.”

- 정약용, 「떠 있는 삶」 -

2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믿음이 드러나 있다.
- ④ (가)에는 과거에 대한 만족감이, (나)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⑤ (나)에는 외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다)에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22. 다음은 (가)를 감상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 중,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 질문을 통해 작품 감상하기

- ‘함박눈’이 왜 슬픈 것처럼 덮인다고 했을까?
→ ㉠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화자의 마음이 슬펐기 때문인 것 같아.
- ‘벽과 천정’이 왜 하얗다고 했을까?
→ ㉡ 화자는 아무도 없는 방안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
- ‘순이’가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 화자는 순이가 가는 곳을 몰라서 순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
- ‘발자욱’을 왜 따라갈 수도 없다고 했을까?
→ ㉣ 눈이 내려 순이가 간 흔적을 덮었기 때문이야.
- ‘일 년 열두 달’ 마음에 눈이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 화자는 꽃이 피면 순이를 만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야.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나)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시간에 대해 묻던 주체가 [B]에서 답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
 - ② [B]에서 만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C]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③ [A]와 [B]에는 화자의 경험, [C]에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④ [A]와 [B]는 대화의 형식을 통해, [C]는 독백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⑤ [A]에서 [B], [B]에서 [C]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4. 편지와 전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편지’와 달리 ‘전갈’은 화자가 대상을 만나러 가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 ② ‘편지’와 달리 ‘전갈’은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전갈’과 달리 ‘편지’는 화자에게 대상의 소식을 전해 주는 소재이다.
 - ④ ‘편지’와 ‘전갈’은 모두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담고 있는 소재이다.
 - ⑤ ‘편지’와 ‘전갈’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꾸는 소재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떠 있음’이라는 말에는 ‘가변적, 유동적’이라는 의미와 ‘덧없다, 무상하다’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우리의 삶이란 덧없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도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덧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며 삶을 즐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존재의 무상성을 통찰함으로써 오히려 근원적인 긍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 ① ‘나산 처사’가 자신의 집을 떠 있는 집이라고 한 것은 떠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근원적인 긍정에 도달했기 때문이겠군.
- ② ‘나산 처사’가 나산의 남쪽에 암자를 세우고 사당을 모신 것은 자신의 삶이 덧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③ 글쓴이가 어부와 장사꾼을 슬프게 여기지 않은 것은 자신이 만나는 대상이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④ 글쓴이가 날개로 떠 있는 새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긴 것은 존재의 무상성에 대해 안타까워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글쓴이가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변적인 상황에서도 덧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3동 502호 김석만씨는 내가 입금한 돈 칠백만 원을 돌려주세요!

붉은색 매직펜으로 큼지막하게 쓴 그 글씨들을 읽고 나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분명, 어젯밤 호프집에서 만난 그 남자가 맞았다. 부스스한 머리칼도, 검은색 양복도 그 대로였다. 남자는 사람들을 향해 대자보를 높이 쳐들지도 않았고, 아파트 쪽도 쳐다보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만 있었다. 돛자리가 끝나는 부분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검색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다시 차를 움직였다. 정문 경비가 내 차를 보자 인사를 했고, 나도 꾸벅 고개를 숙였다. 망신을 주려고 온 사람이었구나. 나는 핸들을 돌리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뭐야, 그럼 어젯밤부터 저기에 저러고 있었다는 건가? 502호? 502호에 누가 살지? 저런다고 소용이 있을까? 직접 찾아가서 답판을 내야지. 나는 속도를 높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내 다시 그날 작성해야 할 서류들과 학과 취업률 따위들을 떠올렸다. 칠백만 원이든 천칠백만 원이든 남과 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내가 참견할 만한 일도, 참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저 누군지 모를 사람의 망신을 한 번 보았을 뿐, 저러다가 금세 말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학교에 도착한 후 인터넷으로, 죽은 아이의 아빠가 단식을 시작했다는 기사와, 교육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차례로 읽었고, 교무처와 인재개발원 팀장들과 길게 통화를 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점심시간이 되었고, 자연스레 아침에 보았던 남자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저러다가 말겠지, 했던 남자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몇 날 며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사이 파란 천막 모서리에는 커튼처럼 얇은 비닐이 사면으로 매달렸고, 돛자리 위에는 새로 스티로폼 두 장이 깔렸다. 밤이 되면 비닐을 내리고, 스티로폼 위에 침낭을 깔고 자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비닐을 둘둘 말아올린 후, 합판에 붙인 대자보를 자신의 무릎 앞에 세웠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없었으며,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거는 일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거기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 며칠 사이 나는 ‘참좋은 마트’ 사장에게서 남자에 대한 사정을 좀더 자세히 듣게 되었다. 그게요, 사정이 좀 딱하게 됐더라고요. ‘참좋은 마트’ 사장은 나를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힌 후 음료수 한 병을 따주면서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 떠나서 어렵게 지낸 모양인데, 아, 얼마 전까지는 인천에 있는 무슨 세차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데, 저 사람 어머니라는 분이 몇 달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가 빚을 졌으니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놓고 간 모양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어머니라는 분이 사채를 쓴 모양인데..... 추어탕집 주방에서 일했다나 어쨌다나. 뭐 아무튼 거기에서 일하다가 관절염 때문에 그만두고 철없이 사채를 썼나봐요. 처음에 이백만 원을 빌린 게 금세 사백만 원이 되고 육백만 원이 되고 칠백만 원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 덜컥 겁이 났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래전부터 왕래가 없던 아들을 찾아간 모양인데..... 남자도 선뜻 돈을 보내진 못한 모양이에요. 당장 그만한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겠지만,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거 왜 섭섭하고 원망 같은 게 없었겠어요. 딱

봐도 해준 것도 없는 어머니 같은데,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그 계좌로 돈을 넣은 모양이에요. 군소리 없이 칠백만 원 전부.

‘참좋은 마트’ 사장은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끊었다. 언제부터인가 ‘란 헤어센스’ 여사장도 우리 옆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매미가 울고, 날파리가 많은 여름 저녁이었다.

한데, 여기서부터가 더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사이에 저 사람 어머니도 그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살고 있던 방 보증금도 빼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조금씩 융통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갚고 얼마 뒤에 바로 돌아가셨대요.

(중략)

아, 그래도 저 남자하고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뭘 한 것도 없지만 몇 달 동안 매일매일 얼굴 보고 인사했는데.....

그나마 첫서리 내리기 전에 일이 이렇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러다가 겨울 맞으면 큰일나죠.

502호 할머니는 나서지 않을 거 같으니까 우리가 직접 전하는 거로 하죠, 뭐. 절차가 따로 필요 있나요?

나는 거기까지만 듣고 ‘참좋은 마트’를 나섰다.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말고 나는 걸음을 멈춘 채 뒤돌아 남자를 한 번 바라보았다. 남자는 대자보판을 아예 양팔로 끌어안은 채 꾸벅 꾸벅 졸고 있었다. 남자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인천으로 돌아가겠지. 나는 남자의 인천 거처가 그때까지도 무사히 남아 있기를 바라보았다. 거기까지가 내가 남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다.

후에, 호프집 여주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다음날 그 남자는, 권순찬씨의 행동은, 편지봉투에 정성껏 오만 원권 지폐로 칠백만 원을 마련해간 아파트 입주자들을 충분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입주민 대표는 여비조로 따로 이십만 원이 든 편지봉투도 들고 갔고, 신문기자를 부르진 않았지만 ‘참좋은 마트’ 사장이 스마트폰으로 그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로 했고, 사람들은 남자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박수를 칠 생각이었으며, 기꺼이 남자의 천막 철거 작업을 도울 작정이었지만.....

하지만, 남자는 사람들의 그 모든 선의를 거부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대자보 판을 잡고 제자리에 앉았다. 아니, 권순찬씨. 이게 우리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502호 할머니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502호 할머니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입주민 대표가 그렇게 말했지만, 남자는 요지부동이었다.

저는 원래 그 할머니한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김석만씨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일을 해결하려고요.....

모여 있던 사람들의 탄식이 흐르고, 몇 번의 실랑이가 더 오갔지만, 남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천연스럽게 스티로폼 위로 올라온 모래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기도 했다.

그만 잡시다! 사람들의 성의를 원 저렇게 무시해서야.....

누군가 그렇게 외쳤고, 사람들은 하나둘 다시 단지 정문 쪽으로 되돌아왔다. 그것이 내가 전해들은 그날 일의 전부였다.

①아파트엔 그가 칠백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 이기호,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 -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권순찬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김석만의 행방을 물었다.
- ② 권순찬은 502호 할머니에게 자신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③ 나는 권순찬의 인천 거처가 권순찬이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
- ④ 나는 처음부터 권순찬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 ⑤ 나는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권순찬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

※ 다음을 참고하여 27번과 2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이 작품의 뒷부분에서 권순찬은 누군가의 신고로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 ‘나’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김석만 씨를 목격하고 자신과 입주민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작품의 제목처럼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찾은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베푼 선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권순찬에게 화를 냅니다. 이 작품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27. ㉠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주민들과 권순찬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권순찬이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③ 권순찬에 대한 입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권순찬이 기다리는 김석만이 아파트에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입주민들이 권순찬을 오해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8.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권순찬이 김석만을 기다린 것은 김석만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권순찬에게 주려고 한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찾은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③ 입주민들이 권순찬에게 화를 낸 것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참좋은 마트’ 사장이 권순찬의 사연을 나에게 들려주는 것은 권순찬이 지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이겠군.
- ⑤ 권순찬이 입주민들의 선의를 거부한 것은 입주민들의 돈을 받는 것이 권순찬이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이겠군.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석양(夕陽)이 비졌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뚝 내려라 뚝 내려라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삼공(三公)*을 부러워하라 만사(萬事)를 생각하라

<춘(春) 6>

곳은 비 멎어 가고 시냇물이 맑아 온다
빅 떠라 빅 떠라

냇숫대 둘러메니 깊은 흥(興)을 못 금(禁)하겠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연강(煙江)* 첩장(疊嶂)*은 뉘라서 그려낸고

<하(夏) 1>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 생애 아니러나
빅 떠라 빅 떠라

어옹(漁翁)을 온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사시(四時) 흥(興)이 흐 가지나 추강(秋江)이 으뜸이라

<추(秋) 1>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히고
빅 떠라 빅 떠라

협한 구름 흥(恨)치 마라 세상(世上)을 가리운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파랑성(波浪聲)*을 싫어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삼공: 삼정승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일컬음.
* 연강: 안개 낀 강.
* 첩장: 겹겹이 둘러싼 산봉우리.
* 파랑성: 물결 소리.
* 진훤: 속세의 시끄러움.

(나)

초당 늦은 날에 깊이 든 잠 겨우 깨어
대창문을 바삐 열고 작은 뜰에 방황하니
시내 위의 버들잎은 봄바람을 먼저 얻어
위성 땅 아침 비*에 원객(遠客)의 근심이라
수풀 아래 **뼈꼭새**는 계절을 먼저 알아
태평세월 들일에는 **농부**를 재촉한다
아아 내 일이야 잠을 깨어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허랑(虛浪)하다
공명(功名)이 때가 늦어 백발은 귀밀이요
산업(產業)에 피가 없어 초가집 몇 칸이라
백화주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

홍도 벽도(紅桃碧桃)* 난발(爛發)한데 지팡이 짚고 들어가니
산은 첩첩 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
안개 걷어 구름 되니 남산 서산 백운(白雲)이요
구름 걷혀 안개 되니 계산 안개 봉이 높다
앉아 보고 서서 보니 별천지가 여기로다
때 없는 두 귀밀을 들시내에 다시 씻고

탁영대(濯纓臺) 잠깐 쉬고 세심대(洗心臺)로 올라가니
풍대(風臺)의 맑은 바람 심신이 시원하고
월사(月榭)의 **밝은 달**은 맑은 의미 일반이라
- 남석하, 「초당춘수곡(草堂春睡曲)」 -

* 위성 땅 아침 비: 왕유의 시 구절로 벗과 이별하던 장소에 아침 비가 내리는 풍경을 말함.
* 홍도 벽도: 복숭아 꽃.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축약적 심상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버들'과 (나)의 '뼈꼭새'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가)의 '흥'과 (나)의 '정'은 자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이다.
- ③ (가)의 '어옹'과 (나)의 '농부'는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이다.
- ④ (가)의 '추강'과 (나)의 '밝은 달'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⑤ (가)의 '냇숫대'와 (나)의 '백화주'는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자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화자는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① ㉠은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은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은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자연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④ ㉣은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사람으로 화자가 안타까워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⑤ ㉤은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인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주기억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CPU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주기억장치의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기억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오면 두 장치의 처리 속도의 차이로 인해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캐시 기억장치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캐시 기억장치는 CPU 내에 또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한 기억장치로 주기억장치보다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캐시 기억장치에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복사해 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캐싱(caching)’이라고 한다.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고려되는 것이 참조의 지역성이다. 참조의 지역성은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적 지역성은 CPU가 한 번 사용한 특정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고, 공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한편 주기억장치는 ‘워드(word)’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캐시 기억장치는 ‘블록(block)’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이때 워드는 비트(bit)*의 집합이고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을 말한다.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라인(line)’이라고 한다. 캐시 기억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에서 캐시 기억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캐시 기억장치의 용량은 주기억장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의 블록 중에서 일부만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주기억장치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장치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2^n 개, 캐시 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M 개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주기억장치의 블록 한 개가 K 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이 주기억장치의 총 블록 개수는 $2^n/K$ 개가 되며 각 워드는 n 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 그리고 캐시 기억장치의 각 라인은 K 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캐시 기억장치에는 총 M/K 개의 라인이 만들어진다.

캐싱이 이루어질 때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주소가 사용된다. 이 주소는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그 필드’는 캐시 기억장치의 특정 라인에 주기억장치의 어떤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라인 필드’는 주기억장치의 블록이 들어갈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을 지정해 주며, ‘워드 필드’는 주기억장치의 각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를 지정해 준다.

주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 ‘직접 매핑’이다. 직접 매핑은 주기억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캐시 기억장치

의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직접 매핑 방식에서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CPU가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면, 우선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를 이용하여 캐시 기억장치의 해당 라인을 확인한다. 그리고 해당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한다. 이때 두 태그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를 ‘캐시 히트(cache hit)’라고 하며,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하여 라인 내 워드들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 CPU에 보내 준다. 그런데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장치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라인이 비어 있어서 요청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 경우를 ‘캐시 미스(cache miss)’라고 한다.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기억장치에서 복사하여 캐시 기억장치의 지정된 라인에 저장한다. 그리고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 필드에 기록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보내 준다. 만약 그 라인에 다른 블록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 블록은 지워지고 새롭게 가져온 블록이 저장된다.

[B]

직접 매핑은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있는지 확인할 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회로의 구조가 단순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같은 라인에 저장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블록을 CPU가 번갈아 요청하는 경우, 계속 캐시 미스가 발생해서 반복적으로 블록이 교체되므로 시스템의 효율이 ㉡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 어디에나 자유롭게 블록을 저장하는 ‘완전 연관 매핑’, 직접 매핑과 완전 연관 매핑을 혼합한 ‘세트 연관 매핑’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 비트: 컴퓨터에서 정보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2진수의 0 또는 1이 하나의 비트.

32.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캐시 기억장치의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워드만 저장될 수 있다.
- ② 캐시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보다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
- ③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야 캐싱의 효율이 높아진다.
- ④ 시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 ⑤ 캐싱은 캐시 기억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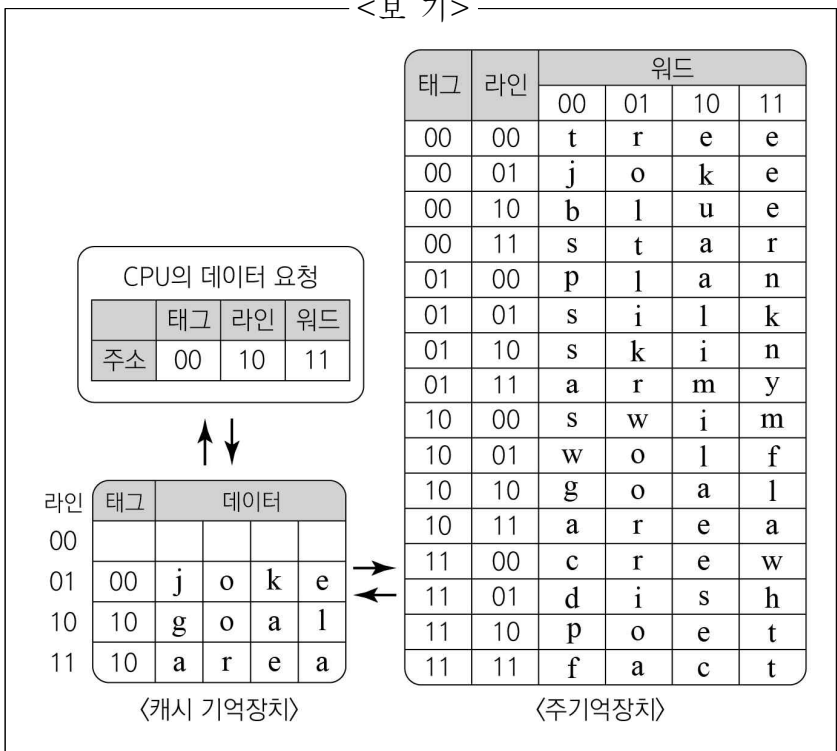
33.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 기>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64개의 워드이고, 하나의 블록이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주기억장치는 총 16개의 (㉠)으로 구성되며, 각 워드는 (㉡)의 주소로 지정된다. 또한 캐시 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16개의 워드라면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은 (㉢)가 만들어진다.

- | | | | |
|---|----|-----|----|
| | ㉠ | ㉡ | ㉢ |
| ① | 블록 | 6비트 | 4개 |
| ② | 블록 | 8비트 | 6개 |
| ③ | 워드 | 8비트 | 4개 |
| ④ | 라인 | 6비트 | 4개 |
| ⑤ | 라인 | 8비트 | 6개 |

34. <보기>는 '직접 매핑'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요청된 주소의 '10'을 이용하여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을 확인한 후 태그 '00'이 그 라인의 태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겠군.
- ②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캐시 미스가 일어나겠군.
- ③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블록 중에서 'b, l, u, e'가 복사되어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되겠군.
- ④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 '0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겠군.
- ⑤ CPU의 데이터 요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CPU로 보내지는 데이터는 'e'가 되겠군.

35.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완전 연관 매핑은 캐시 기억장치에 블록을 저장할 때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 방식 중에 캐시 히트의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히트 여부 확인이 모든 라인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색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그리고 회로의 구조가 복잡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높다. 주기억장치의 블록이 캐시 기억장치의 정해진 라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의 주소는 태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진다. 대신 블록이 교체될 때 어떤 블록을 삭제할지를 결정하는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별도로 필요하다.

- ① ㉠과 달리 ㉡은 주기억장치의 주소에 태그 필드가 있다.
- ② ㉠과 달리 ㉡은 캐시 히트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빠르다.
- ③ ㉡과 달리 ㉠은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 ④ ㉡과 달리 ㉠은 라인을 지정하여 블록을 저장한다.
- ⑤ ㉠과 ㉡은 모두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다.

36.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엔진의 성능이 떨어져서 큰일이다.
- ② 소매에서 단추가 떨어져서 당황했다.
- ③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했다.
- ④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기로 했다.
- ⑤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나 아렌트는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사유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철학적 지평을 열어 준 철학자이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는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아렌트가 이것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행위의 가능성이다. 그녀는 인간의 활동으로 '노동', '작업', '행위'를 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노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활동이다. 노동은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 종속된 것이다. 작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과 결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다른 존재들과 상호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녀는 행위가 노동, 작업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행위만이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고 밝힌다.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사적인 것으로, 행위를 공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공적 영역으로 규정한다.

아렌트는 이러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

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가정과 폴리스*의 구분에서 찾았다. 그녀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정을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인식했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노동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고, 작업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유용한 것만을 생산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획일성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에 반해 폴리스는 공적 영역으로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그렇다고 사적 영역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고, 가정에서 삶의 필연성을 충족한 시민들이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 가정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폴리스에서 다른 시민들을 만나 함께 공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때 자유롭다는 것은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어떠한 강제나 강요도 없이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렌트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정치라고 보았다.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아렌트는 정치의 본질을 자유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렌트는 근대 이후에 '사회'가 출현했고, 이 **사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진단한다. 왜 아렌트는 사회의 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일까? 그것은 그녀가 사회를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거대한 가족 결합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의 활동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기에 경제 활동은 본래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제 활동이 근대에 이르러 사회가 출현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갔고 이로 인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경제 활동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에 자리하게 되면서 공적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렌트의 분석이다.

결국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의 문제점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사회가 등장하며 새롭게 나타난 활동 양식을 '행동'이라 부른다. 행동은 행위가 일어났던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로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위해 행위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철저하게 경제화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박탈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에서의 행동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다. 사람들은 오직 공적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유 실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폴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지역별로 도시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치 공동체.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철학자의 정치 이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그의 견해가 지니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철학자가 제시하는 인간 활동의 유형을 비교하고 그의 정치 이론이 지닌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특정 철학자가 밝힌 정치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그가 비판하는 근대 이후 사회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특정 철학자의 정치와 관련된 가설을 소개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⑤ 특정 철학자가 분석하는 정치 체제의 발달 단계를 고찰하고 근대 이후 사회에서 필요한 정치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 ②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 ③ 정치는 인간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 ④ 행위는 언어적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 ⑤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연성의 구속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9. '한나 아렌트'의 견해에 대해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창조적 존재이다. 인간에게 노동은 물질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또한 노동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노동을 통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노동으로 인간은 자유를 실현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 ① 당신은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보지만, 노동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 ② 당신은 노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충족시켜 줍니다.
- ③ 당신은 노동을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만드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으로 인간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신은 노동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⑤ 당신은 노동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삶의 방식을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40.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들은 사회에서 행위를 하기 어렵겠군.
- ②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군.
- ③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가정에서 했던 경제 활동을 사회에서 하겠군.
- ④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겠군.
- ⑤ 사람들은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할 뿐 다양한 관점은 갖지 못하겠군.

41. 윗글의 ‘한나 아렌트’와 <보기>의 ‘공자’, ‘플라톤’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공자는 부자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정치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사랑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여겼다. 즉 국가는 가정의 확장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구분할 수 없고 가정에서의 관계 맺음은 정치 체제의 근본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플라톤은 정치와 관련하여 사적 영역인 가정을 이상 국가를 만드는 데 방해물로 보았다.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데 가정은 개인의 욕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가들에게 자식과 재산을 공유할 것을 주장하며,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 ‘공자’와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군.
- ② ‘공자’와 ‘한나 아렌트’는 모두 사적 영역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군.
- ③ ‘공자’와 ‘한나 아렌트’는 모두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음을 정치로 인식하고 있군.
- ④ ‘플라톤’과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 ⑤ ‘플라톤’과 ‘한나 아렌트’는 모두 사적인 것을 공유해야만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적들이 현의 다리를 잡고 물에 던졌을 때, 풍량이 현을 휩쓸다가 모래사장으로 내굴렀다. 어린 현이 물을 끝없이 토하며 어머니를 부르고 통곡하다가 사방을 둘러보니 무인지경(無人之境)이었다.

이때 절강 소흥부에 유 소사라는 재상이 있었다. 황성에서 벼슬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퇴사(退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문득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공에게 분부하여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배를 대고 내려와 보니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유 소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네 어찌 된 아이이건대 홀로 이렇게 슬피 우느냐?”

현이 울음을 그치고 올려다보니 한 백발노인이었다. 유 소사가 이어서

“네 어디에 살고 나이는 몇이며 이름은 무엇이나?”

하고 묻자 현이 대답했다.

“나이는 일곱 살이었고 성명은 최현이오며, 모친을 따라 부친적소로 찾아가다가 모친도 없사옵고 시종도 없삽기로 갈 바를 알지 못해 홀로 울었나이다.”

소사가 다시금 묻기를

“부친이 어디로 갔건대 찾아가느냐?”

라 하니, 현이 대답하였다.

“부친은 벼슬을 하시다가 참소(讒訴)에 들어 유배 가셨기로, 모친과 그 적소에 찾아가는 길이었사옵나이다.”

유 소사가 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인에게 말했다.

“간밤에 한 꿈을 얻었는데, 백발노인이 와 이르되 ‘그대 일생 자식 없음을 서러워하매 양자를 데려왔으니 수양아들로 삼아 잘 기르라’ 하시기로 이 아이를 데려왔소이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첩도 간밤에 한 꿈을 얻었는데, 하늘에서 칠성(七星)이 떨어져 치마에 싸이거늘 이를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지금 짐작하옵건대 그 꿈이 허사가 아니옵니다.”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 소사의 양자로 살아가던 최현은 유 소사 부부가 죽자 의지할 곳이 없어 양식을 빌며 정처 없이 떠돌던 중 한 도사를 만나게 된다.

“이 칼은 천사검(天賜劍)이요, 이 책은 옥갑경(玉甲經)이라. 성인군자가 가질 만한데, 만일 그대 곧 아니면 가질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사해를 두루 돌아 이제야 전하노라. 그대는 삼가 누설하지 말라.”

현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소생은 인간의 천한 것이라, 이 두 보배를 어찌 지니리까? 바라노니 존공은 지닐 사람에게 주옵소서.”

라 하니,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그대를 내실 때 대명(大明)을 위하여 내셨도다. 또한 천사옥갑은 그대를 위하여 내신 것이니, 어찌 사양하리오?”

“설령 보배라 한들 내어 쓰지 못하오니 그 어찌 소생이 가질 바이리까? 옳드려 바라건대 존공은 가져가시어 제 임자에게 전하옵소서.”

“어찌 이같이 고집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영화(榮華)를 누리며 대국을 편안하게 하고 이름이 사해(四海)에 진동할 것이니, 어찌 사양함이 이같이 심하리오? 이 칼이 비록 서리었으나 쓸 때를 당하면 자연히 저절로 빠져나와 펼치면 길이가 팔 척이라. 이 두 가지 보배는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에 떨어져서 서기가 천하에 비추었으되 찾아가갈 사람이 없어 이 늙은 것이 삼 년을 수고하고 그대를 찾다가, 오늘 여기에 와서 전하는 것이니 부디 잘 간수하라. 멀지 아니하여 상장군의 절월(節鉞)*과 대원수의 인신(印信)*을 찰 것이니, 그때를 당하면 이 노인의 말을 생각하리라.”

현이 공손히 대답했다.

“정녕 그러하오면 사양할 수 없삽거니와, 미천한 소생을 위하

여 여러 세월을 수고하시니 마음에 황송무지하옵니다. 감히 묻고자 하니, 존공의 거주와 존호(尊號)를 알고 싶습니다.”
 “나의 이름은 ㉠공신술이요, 살기는 공동산에 있으니, 차후에 혹여 급한 일이 있거든 공동산으로 찾아오라. 할 말은 무궁하나 급히 떠나니, 그대는 칠 년 전에 갔던 남경 순천부로 찾아가라.”
 도사가 떠나가더니 불과 몇 걸음에 홀연히 사라져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현이 도사를 이별하고, 천사옥갑을 품에 품고 남경으로 향했다. 현이 여러 날만에 순천부에 이르러서는 밥을 빌러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현의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여겨 가까이 부르고는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며 어찌 이리 빌어먹는가?”
 “가화공참(家禍孔慘)*하기로 자연히 결식하오이다.”
 주인이 가만히 현을 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대의 이름과 얼굴이 본 듯하니 알지 못할 일이라. 그대 혹여 남에게 적선한 일이 있는가?”
 “구걸하는 아이가 어찌 사람을 구제함이 있으리오?”
 “칠 년 전에 진주강 모래사장에서 금은보화로 사람을 구제할 일이 없는가? 공자는 숨기지 말고 바로 이르소서.”
 현이 말했다.
 “서촉으로 가려 하던 중 상인 완삼이 파선하고 물가에서 울거늘, 자연히 마음에 측은하여서 약간 물건을 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찌 구제하였다 하리오?”
 주인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하며 현을 붙들고 반기며 말했다.
 “공자는 나를 몰라보나이까? 내가 바로 ㉡완삼이로소이다. 간밤에 한 꿈을 얻었는데 공자를 만나 은혜를 갚는 꿈이었으나, 내 어찌 공자를 뵈을 줄 알았으리오?”
 완삼이 현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 못내 반가워하며 처자를 불러 말했다.
 “진주강에서 나를 구하던 공자가 이제 오셨으니, 만일 이 공자가 아니었던들 너희들이 순천부 관비될 것을 어찌 면하였으며, 오늘날 먹고 입는 것이 어찌 군색(窘塞)을 면했으리오? 이제 뵈옵기는 천만몽매(千萬夢寐)의 일이요 하늘이 지시함이라.”
 완삼이 못내 사례하니 현이 또한 공손히 대답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인사를 받으니 도리어 민망하오이다.”
 완삼이 즉시 현의 의복을 갈아입히고는 아침저녁으로 공경을 극진히 하였다.

- 작자 미상, 「최현전」 -

* 절월: 임금이 관리가 지방에 부임할 때 주는 물건.
 * 인신: 도장이나 관인.
 * 가화공참: 집안이 당한 화가 매우 참혹함.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4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상대방의 달라진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④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뛰어난 지략을 활용해 최현을 돕는다.
 - ② ㉠과 달리 ㉡은 최현이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최현을 돕는다.
 - ③ ㉡과 달리 ㉠은 최현이 처한 개인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현을 돕는다.
 - ④ ㉠과 ㉡은 모두 최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현을 돕는다.
 - ⑤ ㉠과 ㉡은 모두 최현이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현을 돕는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현전」과 같은 영웅 소설에는 공통적인 서사 구조가 나타난다. 주인공은 하늘이 낸 비범한 인물로, 어린 시절 고난을 겪지만 새로운 인물들과 운명적으로 만나며 고난을 극복해 간다. 주인공은 고난과 극복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승리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 ① 하늘이 대명을 위해 최현을 냈다고 공신술이 말하는 것을 보니 최현은 비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천사옥갑을 자신이 지닐 수 없다고 최현이 말하는 것을 보니 최현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최현이 수적을 만나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니 최현은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는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유 소사 부부가 죽어서 최현이 의지할 곳을 잃은 것을 보니 최현은 또다시 고난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유 소사가 꿈속 암시대로 최현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니 최현과 유 소사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